AUGUST

8

SPRING

SHINCHON Church Young Adult Ministry

신촌성결교회 청년부

묵상 노트
SPRING Life

2011 **8** 월호

사도행전

SPRING
SHINCHON Church Young Adult Ministry

신촌성결교회청년부

그저 좋은 기억으로 있었던 인도 이제 품고 기도하다

저는 2007년도에 인도 배낭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 인생의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여름마다 인도단기선교에 대한 광고와 간증들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도를 다시 여행하고 싶었지만 선교에 대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더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올해는 단기선교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된 바로 다음주일날 단기선교에 대한 광고가 나왔습니다. 파란신호등이 반짝이는 기분, 하나님과 마음이 딱 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의심하지 않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동안에도 재정의 압박과 부모님의 반대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은 더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기선교 준비를 위해 주일저녁 6시마다 다양한 주제 강의가 이루어졌고 만배의 기적 바자회와 기도모임의 시간을 거쳐, 7월 2일에 2주 팀이 출





발하고 7월 9일에 1주 팀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말레이시아를 경유, 인도 델리공항에 내려 숙소에 도착하니 현지시간으로 밤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3시쯤인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피곤함도 이겨냈던 기억이 벌써부터 그리워집니다. 2주 팀은 어린이사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1주 팀은 델리지역 빈민가를 방문하여 의료·미용사역으로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인도를 여행한 경험이 있던 저는, 인도가 절대 바뀔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하고 회의적인 마음이었습니다. 2천 년 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순교했던 땅이지만 예수님을 힌두신의 13번째 아바타로 생각하는 인도사람들이 도대체 바뀔 수 있을지, 이 땅에 과연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힌두사원을 방문하여 우상에게 절하는 그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 저렇게 살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은 긍휼함이 아니라 인도사람들을 미개하다고 무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묵상을 통해 인도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를 아무조건 없이 왕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인도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100여년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아무런 정보가 없던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찾아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노력과 순종이 없었다면, 내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인도사람들과 내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순종함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므로 값없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힌두사원을 둘러보며 그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손에 칼, 도끼, 밧줄 등 흉기를 들고 무서운 표정으로 보는 이를 위협하는 모습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신을 섬기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에게 보복당하거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도 하나님을 그동안 우상처럼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냥 그런 자식 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죄짓고 잘못할 때 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고,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처럼 못난 자녀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내 얘기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와주어서, 나 때문에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저는 눈에 띄지도 않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묵상과 기도와 또 하루 동안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빠짐없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달콤해서 귀가 간질간질한 고백입니다.

저는 2주 팀으로 활동하였는데, 어린이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팀별로 어린이학교에 방문하여 아이들과 찬양하고 율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나서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스탭과 선생님, 학교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학교는 그 동네에 독실한 힌두신자들이 많아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보내기 꺼려하여 선생님이 혼자서 가정방문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선생님의 방문을 거절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미움과 억울함을 당할 때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가족에게 배척당하거나, 학교와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집에 감금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스탭은 인도 오리사주(州) 출신인데 2008년에 있었던 기독교인 박해 때 사람들이 집에 불을 지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통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나라면 이웃들로 부터의 거절과 미움, 박해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무시했던 그 땅을 통해서 나의 교만함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도전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인도는 저의 첫 번째 배낭여행지 이자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그저 좋은 기억이 많은 여행지일 뿐이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품고 중보할 땅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두 번째 인도, 세 번째 인도를 기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들을 도우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통해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 좋은걸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마저 듭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부르실 때에 얼른얼른 순종하셔서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정은 기자
/ euni83@nate.com

첫선교의 기대를 안고 간 미얀마 확신과 자유함을 배우다

7월 17일 아침 처음으로 가는 단기선교라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옮겨 타거나 버스에서 이동할 때도 다들 기쁜 마음으로 공연 준비를 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모습에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마음을 기뻐하셨는지 한국보다 시원한 날씨를 준비해주셨고 무사히 도착하여 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첫 사역지인 퓨처스타스에는 한국으로 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매체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이라 저희의 공연과 율동, 만들기 사역까지 신기한 눈으로 집중하여 잘 따라 주었습니다. 준비해간 것들로 도서관도 예쁘게 꾸밀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때 묻지 않은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미얀마의 영혼을 직접 품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외국 음식을 잘 못 먹는 탓에 도착하기 전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은 제가 거부감을 못 느끼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 이동현 선교사님이 계시는 선교 센터에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얀마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





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 일에 동참하는 청년들을 보고 많이 각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좀 더 단단해진 마음을 가지고 빠오족 마을로 가는 14시간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미얀마에서는 잠을 못자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정말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빠오족 마을에서는 저희가 너무 잘 대접받고 와서 참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왔습니다. 식사 한 끼 한 끼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차리고 치우기까지 다 해주셨고 혹시나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늘 보살펴 주시고 아픈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저는 '예수님이 이 곳을 방문하셨다면 지금과 같이 대접해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 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족식 중에 말없이 눈물로 찾아와 주셔서 성실히 사





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비 때문에 땅이 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몇 십 분 떨어진 학교까지 와준 아이들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함께 춤을 추며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인레호수에서는 다섯 명씩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만든 길인 '예수쟁이의 길'을 지나고, 그리고 배에서 내려 조금 걸어가니 나무 기둥에 지붕을 엮어 만든 작은 움막,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설명대로 아슬아슬해보였고 그래서 그 교회의 존재가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곳엔 남편과 시부모님을 전도하고 온가족이 마을에서 쫓겨났지만 지금은 어떡하면 하나님을 더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 중이라는 한 부인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불안함 속에 살다가 삶의 참 희망을 찾았다는 남편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 날의 숙소인 수상호텔로 돌아오면서 인레호수를 감싸고 있는 양 갈래의 산맥이 인따족을 안고 있는 하나님

의 두 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얀마로 첫 단기선교를 오면서 저의 기도제목 중 하나는 정확한 비전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앞둔 아침, 인레호수를 나오는 배에서 하나님은 묵상을 통해 저에게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맞는 일을 선택해 달라고 기도했던 저였는데 하나님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묶고 있었던 관념들과 죄의식을 깨뜨리게 하셔서 처음으로 ‘자유함’이 무엇인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맛본 저는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으로 마지막 사역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낀마린 기숙사는 여러 곳에서 모인 아이들이 리더로서 교육받으며 자라는 곳입니다. 마술공연에 놀라고 바람개비를 만들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순수한 아이로만 여겨졌는데, 장차 미얀마















를 변화시킬 주역들이라고 생각하니 아이들 한명 한명이 더 대단하고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안아주고 기도할 때는 아쉬운 마음에 많은 팀원들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낀마린 기숙사의 한 아이는 제 이름을 재차 물어보며 저에게 오히려 기도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마지막 날. 현지 스텝분들과 팀을 이루어 교회와 사원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엔 생명이 넘치는 자연들과 청년들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원에는 위압적인 표정을 한 사자모양의 상들과 석굴암의 몇 배는 돼 보이는 돌로 만든 큰 불상, 불상 앞에서 열심히 염불을 외우고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각자 걸으면서 기도를 하기로 하고 안을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장난끼 가득한 표정의 몇 명이 나를 보고는 "안녕하세요."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미얀마인이 한국말을 안다는 것

이 신기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피식 웃고 말았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슬퍼졌습니다. 저렇게 해맑은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불상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다니. 미얀마의 아름다운 면과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며 단기선교를 누렸던 저는 마지막 날 “유진아, 나의 마음은 이렇단다. 너의 마음은 어떠니?”하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슬픈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사랑’에 대해 묵상하며 단기선교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단기선교를 통해서 제게 넘치는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스토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한 편의 단편 스토리를 쓰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모든 팀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우리가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유진 기자
/ deardoll7@naver.com











08 Monday 베드로의 치유 사역

사도행전 9:32-43

09:32 그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09:33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09:34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09:35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09:36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09:37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09:38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09:39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09:40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09:41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09:42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09:43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09 Tuesday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

사도행전 10:1-16

10:01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0:0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0:03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10:0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10:05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0:06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10:07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10:08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10:09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 시더라

10:10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0: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10: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0:13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10:14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10:15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0: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짐

사도행전 10:17-33

10:17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0:18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0:19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10:20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10:21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10:22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10:23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10:24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10:25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10:26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10:27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10:28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10:29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10:30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 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10:31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10:32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10:33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

사도행전 10:34-48

10: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10:35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10:36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10:37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10:39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10:40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10:41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10:42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10:43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10:44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10: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10:46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10:47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풂을 금하리요 하고

10:48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2 Friday 이방인들의 구원받음을 인정함

사도행전 11:1-18

11:0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11:02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11:03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11:04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1:05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11:06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11:07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1:08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11:09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11:10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11:11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1:12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1:13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1:14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1:15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1:16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1:17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11: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안디옥 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11:19-30

11:19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11: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1: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1: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11: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11: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11: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11: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1:27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11:28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11:29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11:30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5 Monday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

사도행전 12:1-17

12:01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12:0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03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12:04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12:0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06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12:07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12:08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12:09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2:10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2:11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12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2: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2:14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2:15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2:16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2:17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교만한 헤롯에 대한 심판

사도행전 12:18-25

12:18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2:19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12:20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12:21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12:22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12:23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12:24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2:25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성령께서 보내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사도행전 13:1-12

13:0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3:0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13:0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3:04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13:05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13:06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13:07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
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13:08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
쓰니

13:09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3:10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
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3:11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
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3:12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18 Thursday 약속의 성취

사도행전 13:13-23

13:13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3:14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3:15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3:16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3:17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3:18 광야에서 약 사십 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3:19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사백오십 년간이라

13:20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13:21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13: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13:23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사도행전 13:24-31

13:24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13:25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13:26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13:27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13:28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13:29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13:30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13:31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믿음으로의 초청

사도행전 13:32-43

13:32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13: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 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13: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13:35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13: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13:37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13:38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13:39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13:40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13:41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13:42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13:43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핍박 중에 얻은 기쁨

사도행전 13:44-52

13:4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13:45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13:46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13: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13: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3:49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13:50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13:51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13: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도행전 14:1-18

14:01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4:02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14:03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14:04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14:05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14:06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14:07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14:0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14:09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4:10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4:11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4:12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4:13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14:15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4:16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4: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14:18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환난을 지나 하나님 나라로

사도행전 14:19-28

14:19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14:20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14:21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4: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14: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14:24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14:25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14:26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14:27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14:28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나됨을 위한 고통

사도행전 15:1-11

15:0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15:02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15:03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15:04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15:05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5:0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15:07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15:0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15:0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5: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5: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26 Friday 일치된 원리

사도행전 15:12-21

15:12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5: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5: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5: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5: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5: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5: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5: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15: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15: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

사도행전 15:22-35

15:22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15:23 그 편에 편지를 부쳐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15:24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15:25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15:26 (상동)

15:27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15:28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15:29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15:30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15:31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15:32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15:33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15:34 (없음)

15:35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29 Monday

심한 논쟁 끝에 갈라섰지만

사도행전 15:36-16:5

15:36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5: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15: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15: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15: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15:41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6:0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16:0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16:0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16:04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16:05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와서 도우라

사도행전 16:6-18

16:0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16:0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6:0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16:0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6: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16:11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16: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6: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6: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6: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16: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6: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6: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31 Wednesday

옥문일 열리고 마음이 열리다

사도행전 16:19-40

16:19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 갔다가

16: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16: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16: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16: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16: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16: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16: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16: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16: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16: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16: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16: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16: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16: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16: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16:35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16:36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16:37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16:38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16:39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16:40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01 Thursday 데살로니가와 베뢰아에서

사도행전 17:1-15

17:01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7:02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7:03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17:04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17:0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17:06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17:07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17:08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17:09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17:10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7: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7: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7:13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7:14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7:15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덴에서의 연설

사도행전 17:16-34

17:16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17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7:18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17:19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17:20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17:21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17: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17: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17: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17: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17:27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17: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17:29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17: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17:32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17:33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17:34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사도행전 18:1-11

18:01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8:02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야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18:03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18:0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8:05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18:06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18:07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18:0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18:0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8: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8:11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묵상 노트
SPRING Life

발행일 | 2011. 08. 07
발행인 | 신 건 목사
신촌성결교회 청년부

발 행 | 문서선교팀 (담당사역자 | 박수범 목사)
표지 디자인 - 최윤정
내지 디자인 - 이흥범
컨텐트 수집&정리 - 박세라 서유진 이상미
이정은 조신재
기획 / 편집 - 송영일

문의 | 박수범 목사 (010. 2990. 3371)

8









